

‘색의 마술사’ 임직순을 아시나요



이흥재의
세상만사

주필

나이를 꽤 먹은 나도 그를 자세히 모르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를 알 리 없다. 미술에 문외한인 내가 그를 잘 알지 못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그림을 전공하는 미술학도들이라면 아무리 젊다 해도 그를 모를 리 없다. 그만큼 그는 이 지역 화단의 거장(巨匠)이니까.

흔히 호남 서양화단의 선구자를 말할 때 추상 계열의 김환기·강윤운·양수아와 함께 구상 계열에선 오지호(1905~1982)와 임직순(1921~1996) 두 사람을 꼽는다. 그중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인공은 임직순이다. 그는 1961년 오지호 후임으로 조선대 미술학과 교수를 맡으면서 광주와 인연을 맺게 된다. 따라서 임직순을 이야기하기 전에 위인 오지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낀다.

황해도 개성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오지호가 1948년 광주로 내려와 정착한 이후 호남 서양화단은 개화(開花)를 꾀한다. 밝고 맑은 한국적인 색을 기본으로 작가의 개성이 담긴 독특한 화풍이 등장하는 이 시기 작가들은 풍부한 빛에 감성을

담아 자연에서 느끼는 생명감을 표현했다. 이러한 작품 양식은 이 지역 서양화단의 큰 맥이 되어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다.

오지호는 휘문고보 재학 시절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 고회동에게 그림을 배운 뒤 일본 동경미술학교에서 공부했다. 하지만 일본인으로부터 받은 일본적 암흑의 색채를 버려야 한다는 민족주의 예술 관점을 제시했다. 오색 찬연한 조선의 색채를 회화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우리 민족의 따스한 감성을 표현한 예술가라는 평을 듣는 것은 그 때문이다.

호남 서양화단에 씨 뿌린 거장

1942년 전쟁기록화를 그리라는 총독부의 명령을 오지호가 거부한 일화는 유명하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는 사상이 의심스러운 인물로 분류돼 감시를 받으며 피신 생활을 하다 해방 바로 전 화순 동복 집으로 돌아온다. 고향에서 해방을 맞은 그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 조선미술건설본부 임원 등을 지냈으며 1948년 광주에 완전히 정착한다. 1949년 조선대 미술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1960년대 초까지 조선대와 조대부고에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 냈다. 이들은 오승우와 오승운을 비롯해서 조규일·강연균·임병구·송승·최쌍중·박동인·배동환 등등.

오지호는 ‘지조 있는 예술가’이자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다음날인

5월 17일엔 4·19혁명 관련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혁명재판에 회부된 오지호는 1년 가까이 옥고를 치러야 했다. 임직순이 낮은 땅인 광주에 내려온 것은 이 무렵이다. 당시 오지호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 떠밀려 후임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강사로 재직 중이던 자신의 제자 진양옥을 임직순이 머물던 서울로 급파한다. 1960년이였다.

그때 임직순은 몹시 가난해서 6만 원의 빚을 갚아야 조선대로 부임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대 측은 이 빚을 갚아 주는 대신 향후 받게 될 월급에서 매달 공제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소매치기가 많던 시절이라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데에는 위험이 따랐다. 진양옥은 전대(繼帶) 돈이나 물건을 넣는 자루를 만들어 허리춤에 찬 후 받기자를 타고 서울로 가 무사히 임무를 완수했다. 이때 오지호가 임직순을 자신의 후임으로 정한 것은 이미 임직순의 명성을 들어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숙명여고 교사로 재직 중이던 임직순은 최고의 인기 화가이기도 했다.

임직순은 충청북도 괴산군 수안보(지금은 충주시로 편입됨)에서 태어났다. 1936년 일본에 건너가 1942년 동경 일본미술학교 유희과를 졸업했다. 한데 그가 일본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흥미롭다. 학창 시절 친구의 여동생인 한 여학생을 짝사랑했는데, 그 소녀에게 뭔가 보여 주고 싶어 일본행을 택했다는 것이다. 임직순의 그림에 솔하게 많은 소녀(여인)가 등장하는 것은 아마도

이때의 첫사랑이 자연스럽게 작품의 주제로 발전한 것일 터이다.

그는 미술학도 시절인 1940년 조선미술전람회(현 '정물')에 입선되었고 광복 후 1949년 제1회 국전(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는 ‘가을 풍경’과 ‘만추(晩秋)’가 입선됐다. 이어 6·25 전쟁으로 중단됐던 국전이 1953년 재개된 이후 해마다 입선과 특선을 거듭하였는데, 특히 1957년 제6회 국전에서는 ‘좌상(坐像)’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크게 각광을 받았다. 1959년에는 추천작가가 되었고 1963년부터는 초대작가로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그리고 조선대 교수로 1974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14년간 광주에 거주하며 서정적 색채 화가로 이름을 날렸다.

자상한 성품 많은 제자 길러 내

임직순은 인상주의적인 화풍의 밝고 정감 있는 색채를 구사했으며 그래서 ‘특출한 색채적 표현주의 화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조선대에서는 오지호와 마찬가지로 색채 존중 기법을 지도하여 자연주의 성향의 배운 서양화풍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임직순에게 배운 제자들은 김재형·황영성·이태길·송승·최영훈·문옥자·국중호·정승규 등이 있다. 그리고 이들 예술가들에 의해 구상 계열 남도 서양화단의 화려한 꽃이 비로소 피어났다.

임직순은 작품도 작품이지만 인품도 훌륭한 모범이다. ‘첫인상이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자상하셨습니다. 언제나 드로잉을 먼저 강조하셨지요. 그 분의 강의에 학생들은 모두 낮을 잃곤 했습니다.(황영성)

“선생님은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야 한다’며 어떻게든 색채에 대한 자신의 안목을 전수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하면서 화가로서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저 또한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영혼의 색채를 길어 올리기 위해 고뇌의 두레박을 가슴 깊은 곳으로 수없이 던지곤 했습니다.”(최영훈)

“제가 여고 2학년 때 선생님이 조선대에 오셨어요. 당시 광주 화단에서는 대단히 큰 화렷거리였지요. 선생님은 당시 화가를 꿈꾸는 후학들의 로망이었으니까요. 그 깊고 아늑한 조형의 세계를 현란한 색채는 단연 우리 여고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을 직접 뵈기회가 있었는데 매우 친절하고 부드러우셨어요.”(정승규)

임직순은 사실주의를 거부하며 앙리 마티스의 절제된 표현과 피에르 보나르의 화려한 색채를 화폭에 담아내며 ‘색의 마술사’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임직순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화가였는지 잘 알지 못한다. 오늘 이 글을 그에게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다. 대군다나 올해는 임직순 화백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 아닌가. 지금이라도 그를 기리는 어떤 작은 행동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후배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도리일 터이니 말이다.

‘감사와 사랑 실천’ 정진석 추기경 선종

향년 90세... ‘교회법 전문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을 지낸 정진석(사진) 추기경이 27일 오후 10시께 서울성모병원에서 선종했다. 향년 90세.

1931년 서울에서 태어난 정 추기경은 1954년 가톨릭대 신학부에 입학했다. 1961년 3월 사제품을, 1970년 주교품을 받았다. 원래 발명가를 꿈꾸며 서울대 공대에 입학했지만 6·25 이후 사제의 길로 들어섰다.

만 39세 나이로 제2대 천주교구장에 임명돼 28년간 천주교구를 담당했다. 1998년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돼 대주교로 승품했으며 평양교구장 서리를 겸했다. 이후 2012년 서울대교구장에서 사임하기까지 14년간 교구를 대표했다.

고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교회법 전문가’로 꼽힌다. 1968년 이탈리아 유학길에 올라 1970년 교황청 우르바노 대학원에서 교회법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가톨릭교회 교회법전의 한국어판 작업을 주도했으며 법전의 해설서를 썼다. 2002년까지 총 15권의 교회법 해설서 편찬작업을 마무리했으며, 특히 신학교 때부터 교회법을 포함해 번역·저술한 책이 50권을 넘는다.

그는 2006년 2월 교황 베네딕토 16세로부터 추기경으로 임명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고(故) 김수



정 추기경은 두 달 전 건강 악화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노환에 따른 대동맥 출혈로 수술 소견을 받았으나 고령인데다 주변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며 수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지난 2006년 ‘사후 각막기증’ 등을 약속하는 장기기증에 서명했다. 2018년에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28일 종교계는 추기경의 선종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회는 이날 대표회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 “평소 생명을 존중하며 행복하게 사는 삶을 추구했던 추기경님의 선종을 국민과 함께 애도한다”고 밝혔다.

원불교 오도철 교정원장도 추도문에서 “추기경님께서 우리 사회와 시민들의 마음에 심어주신 감사와 사랑의 실천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의 길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빈소는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 마련돼 있으며, 장례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5일장으로 치러진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전복·해조류 추출물, 코로나 억제 효과 확인”

세계적 권위지 ‘마린드럭스’ 발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주)MBD 공동 연구팀이 전남 해안에서 생산한 전복 내장과 톳, 청각, 다시마 등 해조류 추출물 세포실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

공동 연구팀은 이같은 내용을 세계적 권위의 해양의약 분야 학술지인 ‘마린드럭스(Marine Drugs)’에 발표했다.

5·18 전재수 사진 모비 제작

▶1면에서 계속

전군의 부친은 당시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놀던 전군에게 밖으로 나가놀라고 했다고 한다. 함께 놀던 친구가 전군 집으로 뛰어들어와 “재수 아버지, 재수가 죽었어요. 군인들이 총을 쏘서 재수가 죽었어요”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구술에 담겨 있다.

당시 사체 검안서에는 전군의 ‘우측눈꺼풀 하부에서 좌측눈꺼풀 하부 부분으로 관통총상’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 사건 이후 전군의 모친은 소중

한막내아들을 잃은 슬픔에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 간경화로 4년 뒤 숨졌다. 재용씨도 이 때 이후 트라우마로 힘들어했다. 재용씨는 “40년 만에 동생 얼굴을 다시 보니 너무나 반갑고 반갑이 교차했다”면서 “그동안 사진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바이러스(SARS-CoV-2, COVID-19)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 표면의 엔지오펜신 전환효소(ACE-2) 수용체와 결합해 세포 내로 침투해 이뤄진다. 공동연구팀은 세포실험에서 전복 내장과 해조류의 분자량이 크고, 후코스(fucose) 함량이 높은 장내 다당류에 의해 바이러스(COVID-19) 스파이크 단백질과 엔지오펜신 전환효소(ACE-2) 수용체의 결합을 방해해 감염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실험은 전복 내장과 해조류를 열수 추출한 후 알긴산을 제거하고 다당류(Crude polysaccharide)를 유사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엔지오펜신 전환효소가 과발현되도록 조작한 인간배아신장 세포에 농도별로 처리해 96시간 후 감염 정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전복 내장, 톳, 청각, 다시마, 후코이단, 미역귀 순으로 유사 코로나바이러스의 세포 침투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막내아들을 잃은 슬픔에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 간경화로 4년 뒤 숨졌다. 재용씨도 이 때 이후 트라우마로 힘들어했다. 재용씨는 “40년 만에 동생 얼굴을 다시 보니 너무나 반갑고 반갑이 교차했다”면서 “그동안 사진도

임야 삽니다
지분 환형
당일처리. 010-8902-7900

경매물건 투자
급매물에 투자
하실 분. 010-3605-5000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포남약 준주거, 담양양각 주거2중

-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광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 무안군 삼양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상권 1천9평 매 75억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광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p>자본감소공고</p> <p>본 회사는 2021년 4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800,000,000원을 금 58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10,000원 주식 22,000주에 대하여 강제유상소각하기로 하여 발행 주식총수 80,000주를 58,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당사의 주주께서는 이 공고제일부 1월 이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위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p> <p>2021년 4월 29일 주식회사 다림건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106번길 129-21(우산동) 대표자 사내이사 옥만옥</p>	<p>자본감소공고</p> <p>본 회사는 2021년 4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305,000,000원을 금 225,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10,000원 주식 8,000주에 대하여 강제유상소각하기로 하여 발행 주식총수 30,500주를 22,5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당사의 주주께서는 이 공고제일부 1월 이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위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p> <p>2021년 4월 29일 주식회사 산울건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106번길 129-21(우산동) 대표자 사내이사 김숙향</p>
<p>상속한정승인공고</p> <p>· 피상속인 : 망 임시택(330222-XXXXXX) · 최후주소 : 여수시 신일로 686, 102동 401호 (국동, 대주아파트)</p> <p>피상속인 망 임시택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년 단227호로 신청하여 2021년 4월 2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p> <p>2021년 4월 29일 · 상속인 : 임재훈(681003-XXXXXX) · 상속인 : 여수시 양지1길 5, 313동 1204호 (미명동, 선경아파트)</p> <p>· 신고기간 : 2021. 4. 29. ~ 2021. 7. 8.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임재훈의 주소</p>	<p>상속한정승인공고</p> <p>· 피상속인 : 망 임동환(900701-XXXXXX) · 최후주소 : 광주광역시 선운로 65, 305동 2104호 (선암동, 선운지구 리버프라이)</p> <p>피상속인 망 임동환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1년 단108호로 신청하여 2021년 4월 19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p> <p>2021년 4월 29일 · 상속인 : 1. 임한정(661026-XXXXXX) 2. 배은아(700423-XXXXXX) · 상속인 : 1. 2의 주소 광주광역시 선운로 65, 305동 2104호 (선암동, 선운지구 리버프라이)</p> <p>· 신고기간 : 2021. 4. 29. ~ 2021. 7. 8. · 채권신고소 : 상속인 2. 배은아의 주소</p>

산행안내

5월9일(일)
▲광주Kj산악회 5월9일(일) 경남 산청군, 황매산, 철쭉

꽃 산행, 염주체육관 07:00, 동아병원 07:05, 롯데백화점 07:10, 광주역 07:15, 문예후문 07:25, 비엔 주차장 07:3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